

수방사 경비단장 “정치인 끌어내 지시 받아”

현재 나와 증언했던 그대로 검사 신문에서 증언
윤,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 출석…혐의 부인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된 ‘민간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형사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몇 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됐고 계엄 선포는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용도였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사전에 모의했으며 협박과 법률의 기능 소멸을 목적으로 이를 선포했다고 지적했다.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 경비단장(대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이어 형사재판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 본청에서 ‘정치인 끌어내기’ 지시를 받은 바 있다고 진술했다.

‘지역특구법 개정안’
권항엽 의원 대표 발의

투명성 제고 및 절차 개선 목적: 더불어민주당 권항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14일, 규제자유특구 지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절차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한 ‘지역특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규제자유특구 지정 시 자자체장의 신청 후 중기부 장관의 심의를 거치지만, 반려 사유 불명확 및 소통 부족 문제가 제기되었다. 또한, 계획 수립에 대한 지침 보완 필요성이 지적됐다.

개정안은 규제자유특구계획 수립 지침 배포 의무화, 반려 사유 통보, 미비한 신청에 대한 중기부의 보완 요구 등을 통해 지정 절차의 효율성을 도모한다.

권 의원은 2024년 국정감사에서 특정 지역에 편중된 규제자유특구 선정 문제를 지적하며, 중기부의 하위 답변 제출을 비판했다.

당시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해당 내용을 파악하고 자자체와의 소통 강화 및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권 의원은 “지역특구법이 지역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고 강조하며, 투명한 선정 과정을 통한 지역 편향성 해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권 의원을 포함해 총 2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으며, 6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증소 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개정안은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하고, 규제자유특구 지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법재판관 지명’ 국회의장
권한쟁의, 마은혁에 배당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통령 둑 현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이 마은혁 재판관에게 배당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법재판관은 이날 우 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마재판관에게 배당됐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마재판관을 임명하면서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행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우 의장은 지난 11일 “국회의 현법 기관 임명에 관한 인사청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현재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냈다.

우 의장은 한 권한대행의 대통령 둑 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국회가 보유한 현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심의·표결권, 국정통제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전 수방사령관은 다시 전화를 걸어 “특전사가 의원들을 끌고 나오면 밖에서 지원하라”고 말했다는 게 조 단장의 설명이다. 조 단장은 “지원하라는 말은 밖에서 대치하고 있는 사람들 쪽에서 길을 터주는 역할을 하라고 (이) 사령관이” 밀해서 지원이라 표현했다”고 덧붙였다.

조 단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을 지휘했던 군 사령관 중 한 사람이다.

조 단장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공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조 단장은 계엄 당일 오전 0시 31분~1시 사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본청 내부에 진입해 의원을 외부로 끌어내리는 지시를 받은 게 맞는지’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조 단장은 당시 이 전 수방사령관

에게 전화를 걸어 “이 역할에 대해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되고 (어렵고) 특수전사령관과 소통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조 단장은 당시 이 전 수방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이 역할에 대해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되고 (어렵고) 특수전사령관과 소통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조 단장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공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조 단장은 계엄 당일 오전 0시 31분~1시 사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본청 내부에 진입해 의원을 외부로 끌어내리는 지시를 받은 게 맞는지’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조 단장은 당시 이 전 수방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이 역할에 대해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되고 (어렵고) 특수전사령관과 소통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조 단장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공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조 단장은 계엄 당일 오전 0시 31분~1시 사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본청 내부에 진입해 의원을 외부로 끌어내리는 지시를 받은 게 맞는지’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조 단장은 당시 이 전 수방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이 역할에 대해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되고 (어렵고) 특수전사령관과 소통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조 단장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공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조 단장은 계엄 당일 오전 0시 31분~1시 사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본청 내부에 진입해 의원을 외부로 끌어내리는 지시를 받은 게 맞는지’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조 단장은 당시 이 전 수방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이 역할에 대해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되고 (어렵고) 특수전사령관과 소통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조 단장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공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조 단장은 계엄 당일 오전 0시 31분~1시 사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본청 내부에 진입해 의원을 외부로 끌어내리는 지시를 받은 게 맞는지’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조 단장은 당시 이 전 수방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이 역할에 대해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되고 (어렵고) 특수전사령관과 소통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조 단장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공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조 단장은 계엄 당일 오전 0시 31분~1시 사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본청 내부에 진입해 의원을 외부로 끌어내리는 지시를 받은 게 맞는지’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조 단장은 당시 이 전 수방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이 역할에 대해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되고 (어렵고) 특수전사령관과 소통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조 단장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공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조 단장은 계엄 당일 오전 0시 31분~1시 사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본청 내부에 진입해 의원을 외부로 끌어내리는 지시를 받은 게 맞는지’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조 단장은 당시 이 전 수방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이 역할에 대해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되고 (어렵고) 특수전사령관과 소통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조 단장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공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조 단장은 계엄 당일 오전 0시 31분~1시 사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본청 내부에 진입해 의원을 외부로 끌어내리는 지시를 받은 게 맞는지’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조 단장은 당시 이 전 수방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이 역할에 대해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되고 (어렵고) 특수전사령관과 소통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조 단장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공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조 단장은 계엄 당일 오전 0시 31분~1시 사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본청 내부에 진입해 의원을 외부로 끌어내리는 지시를 받은 게 맞는지’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조 단장은 당시 이 전 수방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이 역할에 대해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되고 (어렵고) 특수전사령관과 소통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조 단장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공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조 단장은 계엄 당일 오전 0시 31분~1시 사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본청 내부에 진입해 의원을 외부로 끌어내리는 지시를 받은 게 맞는지’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조 단장은 당시 이 전 수방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이 역할에 대해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되고 (어렵고) 특수전사령관과 소통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조 단장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공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조 단장은 계엄 당일 오전 0시 31분~1시 사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본청 내부에 진입해 의원을 외부로 끌어내리는 지시를 받은 게 맞는지’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조 단장은 당시 이 전 수방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이 역할에 대해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되고 (어렵고) 특수전사령관과 소통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조 단장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공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조 단장은 계엄 당일 오전 0시 31분~1시 사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본청 내부에 진입해 의원을 외부로 끌어내리는 지시를 받은 게 맞는지’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조 단장은 당시 이 전 수방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이 역할에 대해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되고 (어렵고) 특수전사령관과 소통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조 단장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공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조 단장은 계엄 당일 오전 0시 31분~1시 사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본청 내부에 진입해 의원을 외부로 끌어내리는 지시를 받은 게 맞는지’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조 단장은 당시 이 전 수방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이 역할에 대해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되고 (어렵고) 특수전사령관과 소통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조 단장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공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조 단장은 계엄 당일 오전 0시 31분~1시 사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본청 내부에 진입해 의원을 외부로 끌어내리는 지시를 받은 게 맞는지’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조 단장은 당시 이 전 수방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이 역할에 대해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되고 (어렵고) 특수전사령관과 소통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조 단장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공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조 단장은 계엄 당일 오전 0시 31분~1시 사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본청 내부에 진입해 의원을 외부로 끌어내리는 지시를 받은 게 맞는지’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조 단장은 당시 이 전 수방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이 역할에 대해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되고 (어렵고) 특수전사령관과 소통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조 단장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공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조 단장은 계엄 당일 오전 0시 31분~1시 사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본청 내부에 진입해 의원을 외부로 끌어내리는 지시를 받은 게 맞는지’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조 단장은 당시 이 전 수방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이 역할에 대해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되고 (어렵고) 특수전사령관과 소통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조 단장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공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조 단장은 계엄 당일 오전 0시 31분~1시 사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본청 내부에 진입해 의원을 외부로 끌어내리는 지시를 받은 게 맞는지’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조 단장은 당시 이 전 수방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이 역할에 대해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되고 (어렵고) 특수전사령관과 소통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